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롬15:16)

작고 약한 저희의 사역가운데 예기치않게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주의 귀한 직분과 부르심이 흔들릴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난 9월2일 주일모임때 6년만에 K시로 돌아온 미국인 C사역자를 초청해 말씀을 듣던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주일모임을 방해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후 두려움을 느낀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와 A형제의 아파트에서 시간도 변경하며 주일모임을 드리고 있는데 찬양하며 기도 할때 소음을 의식하는 불편이 있어 주께서 적당한 주택을 월세로 허락할수 있도록 기도 하고 있습니다



10월12일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앤드류브론슨”사역자의 모습은 저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것 같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은 한 사역자가 강대국의 국가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은 세계의 믿지않는자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이었고 2년동안 그의 석방을 위해서 미국정부가 애쓴 모습은 저희가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길수 있도록 주님의 공평과 인자하심이 넘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정부가 저희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공동체의 형제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선함과 모든 지식에 가득차서 서로 권면하는자가 되라고 당부했듯이 저희도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소식을 통해서 중보를 부탁드린 시리아난민장애인M군(19)의 재활을 위한 전동 의수를 기꺼이 돕고 싶다는 미국의 한 권사님의 섬김 덕분에 10월12일 K시의 의수전문점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독일제수입의수를 주문할수 있게 되어 주께 감사 했습니다 주문한 부품이 세관을 통과해 도착했는데 M군을 위해 조립과 장착이잘 마무리되었으면 바라며 M군은 이 분의 도움을 통해서 전쟁때문에 팔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서신을 보내왔기에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10월4일저녁 복음을 전하기위해 B시에서온 K형제(33)를 시외버스터미널근처에서 만났을때 그는 몸을 가누지못할 정도로 취해 있어서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일단 터미널의 자에서 께때까지 기다려 대화를 했는데 이혼과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자신이 일자리를 얻

을수 있을까 저를 힘있는 사람(?)으로 바라며 만났지만 기대를 깨버리고 힘있는 분 이사(예수)를 소개 하며 영접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K가 직업을 얻고 자신의 바램처럼 이혼한 아내와 자녀들과 재결합하며 일대일양육을 통해서 믿는자로 거듭날수 있도록 중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는 K시로 부터 2시간거리의 A시에서 중학교매점을 운영하는 E형제(38)를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는 추수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 땅에 주의 몸된 공동체가 없기에 성탄모임때 초청해서 세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K시에서 대학졸업반인 G형제(23)를 전도한후 일대일양육을 하고 있는데 성탄절모임때 세례식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나라의 메달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한 건물이나 모이는 형제들의 숫자에 있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씀과 공동체사역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게임이라고 여겨질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나라의 메달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 하는것 이기에 18년도 주께서 작고 약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적은 영혼들과 함께 감사로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해도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섬겨주신 후원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19년 새해 다시 영혼구원을 통한 감사의 소식을 전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18년11월 K시에서 김기쁨/사랑 드림

기도제목

지난 9월첫주 주일예배중 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쳐 그동안 모이던 공동체 장소를 포기하고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며 적당한 월세로 주택을 찾고 있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장소를 얻을수 있도록/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정교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저희와 K시의 다른 사역자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K시와 인근도시에서 계속 세워갈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큰야에서 새로운 믿는자가 생겨나며 지금 일대일 양육하는 대학생 G형제와 A시의 E형제가 성탄예배에 세례를 받을수 있으며 B시의 K형제가 아내와 재결합하며 구원 받도록

후원안내 GMP AMERICA(김기쁨/사랑지정) 보내실곳: P.O.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